

2. 가구·가족

2-1 가족관련 가치관

2-2 가족 간 대화시간

2-3 부모와 자녀 동거

2-4 부모와 살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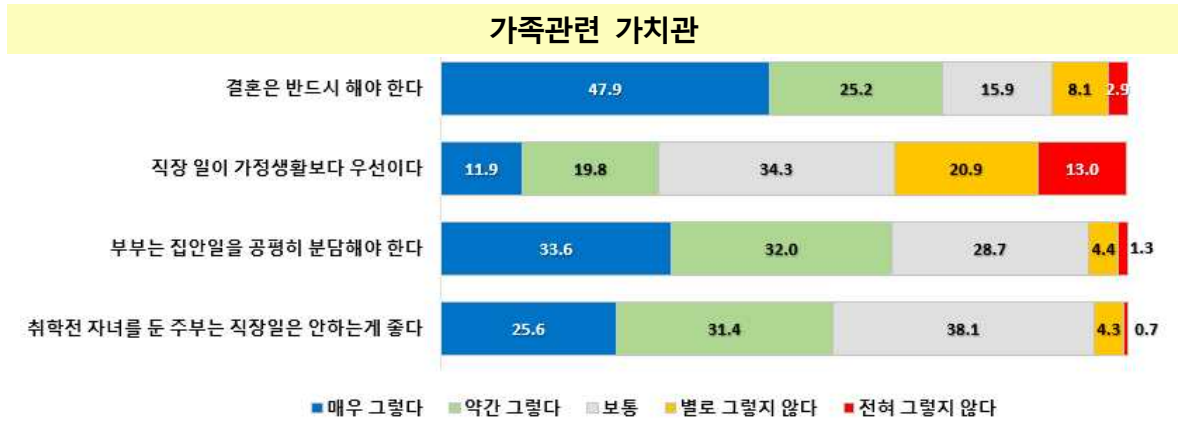
2-5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주된응답)

2-6 이상적인 자녀 수

2-1 가족관련 가치관

결혼은 긍정적, 직장일보다 가정이 우선, 집안일은 부부가 공평하게, 취학 전 주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73.1%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 답변이 증가함.
- 직장 일이 가정생활보다 대체로 우선인 것으로 나타남.
 - 남자(34.9%)가 여자(28.0%)보다 직장 일이 우선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로 15~29세는 직장 일이 우선이다(40.0%)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세 이상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직장일이 가정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 부부는 집안일을 공평히 분담해야 하는 것(65.6%)으로 나타남.
 - 여자(72.1%)가 남자(60.0%)보다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함.
-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는 직장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57.0%)로 나타남.
 - 여자(58.2%)가 남자(56.0%)보다 그렇다고 응답함.



[표 2-1] 가족관련 가치관

(단위: %)

구분	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00.0	47.9	25.2	15.9	8.1	2.9
직장 일이 가정생활보다 우선이다	100.0	11.9	19.8	34.3	20.9	13.0
부부는 집안일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100.0	33.6	32.0	28.7	4.4	1.3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는 직장일은 안하는 게 좋다	100.0	25.6	31.4	38.1	4.3	0.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2 가족 간 대화시간

부부「1시간 이상」, 부모자녀 「10~30분」, 형제자매 「10~30분」

- 부부사이의 대화시간은 「1시간 이상」 33.6%, 「30분~1시간미만」 19.4%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50대가 대화의 시간이 가장 길고,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화의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시간은 「10분~30분미만」 15.6%, 「30분~1시간 미만」 15.3%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 간 대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형제자매 사이의 대화시간은 「10분~30분미만」 3.0%, 「1시간 이상」 2.9%로 나타남.



[표 2-2] 가족간 대화시간

(단위: %)

구분	계	가족과 함께 산다	대화시간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다
			소계	10분 미만	10분~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해당없음	
부부사이	100.0	77.6	100.0	4.7	16.9	19.4	33.6	25.5	22.4
부모와 자녀 사이	100.0	77.6	100.0	4.7	15.6	15.3	11.3	53.1	22.4
형제자매 사이	100.0	77.6	100.0	0.1	3.0	1.2	2.9	92.8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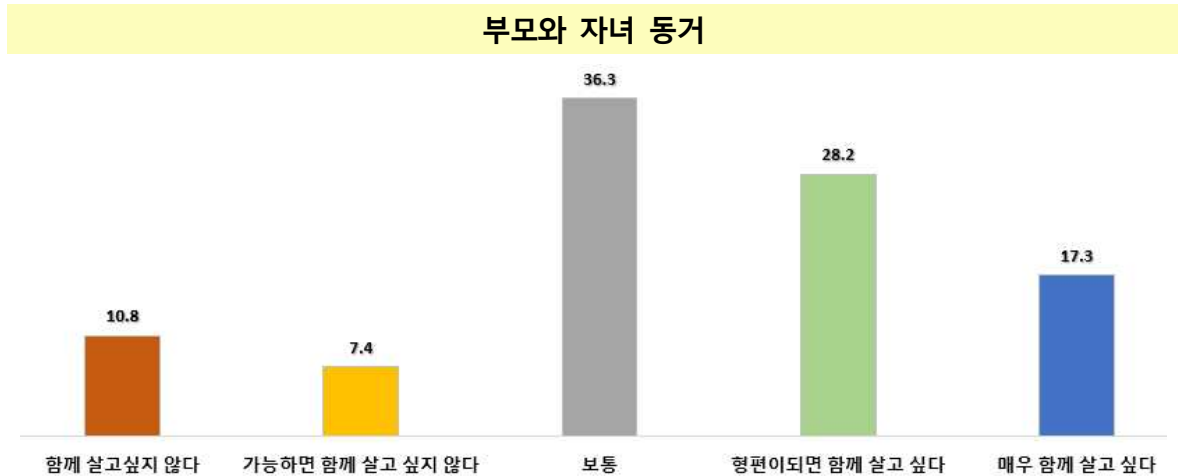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3 부모와 자녀 동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은 45.5%

- 부모와 자녀 동거는 「형편이 되면 함께 살고 싶다」 28.2%, 「매우 함께 살고 싶다」 17.3%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은 45.5%로 나타남.

- 여자(40.2%)보다 남자(48.6%)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부모와 동거를 원하는 응답은 북부권(57.4%)에서 가장 높고, 중부권 42.8%, 서남부권 40.5%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에서 53.9%로 가장 높고, 30대 52.7%, 15~29세 41.6% 순으로 나타남.



[표 2-3] 부모와 자녀 동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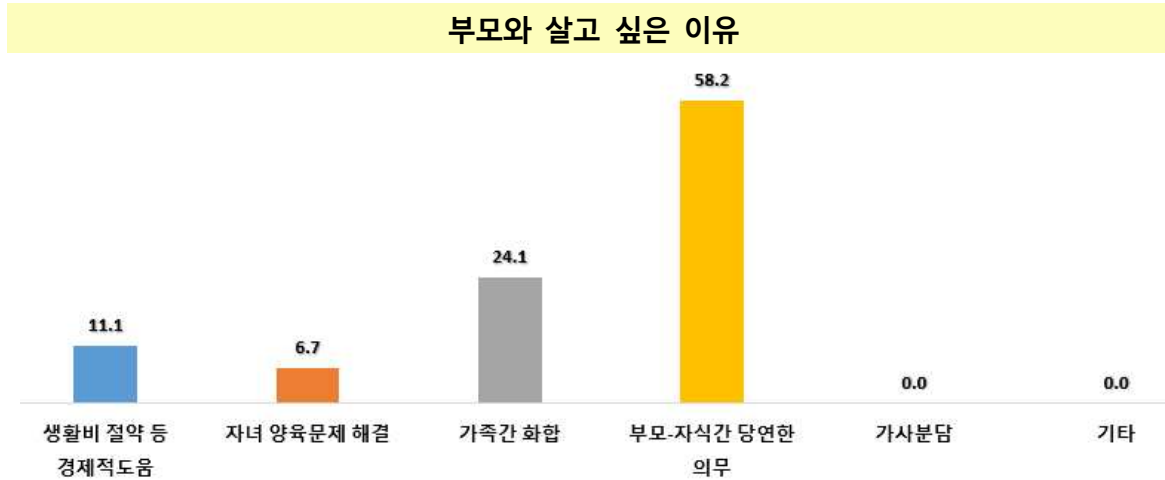
구 분	계	한 분이라도 생존	한 분도 안 계신다						
			소계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보통	형편이 되면 함께 살고 싶다	매우 함께 살고 싶다	
2017년	100.0	50.8	100.0	10.4	7.2	25.7	37.6	19.2	49.2
2019년	100.0	47.0	100.0	10.8	7.4	36.3	28.2	17.3	53.0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4.8	100.0	17.9	5.8	33.5	25.3	17.5	55.2
북 부 권	100.0	48.9	100.0	8.6	9.5	24.6	33.4	24.0	51.1
서 남 부 권	100.0	47.9	100.0	5.7	7.6	46.2	27.6	12.9	52.1
< 성 별 >									
남 자	100.0	56.0	100.0	9.5	4.7	37.2	29.3	19.3	44.0
여 자	100.0	36.8	100.0	13.0	12.1	34.6	26.3	13.9	63.2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4 부모와 살고 싶은 이유

「부모-자식 간의 당연한 의무」 58.2%

-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 이유로는 「부모-자식 간의 당연한 의무」 58.2%, 「가족 간의 화합」 24.1% 순으로 나타남.
- 「부모-자식 간의 당연한 의무」응답은 취업상태의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부모-자식 간의 당연한 의무」응답은 연령별로 40대와 50대의 연령대에서 높게 응답함.
- 「부모-자식 간의 당연한 의무」응답은 남자(62.3%)가 여자(49.7%)보다 높음.



[표 2-4] 부모와 살고 싶은 이유

(단위: %)

구분	계	살고 싶음	이유							살고 싶지 않음
			소계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도움	자녀 양육문제 해결	가족 간 화합	부모-자 식 간 당연한 의무	가사분담	기타	
2017년	100.0	56.8	100.0	13.0	7.3	21.0	58.4	0.0	0.4	43.2
2019년	100.0	45.5	100.0	11.1	6.7	24.1	58.2	0.0	0.0	54.5
< 지역 별 >										
중부권	100.0	42.8	100.0	10.9	9.2	16.1	63.8			57.2
북부권	100.0	57.4	100.0	16.3	3.6	26.8	53.4			42.6
서남부권	100.0	40.5	100.0	6.5	7.0	29.3	57.1			59.5
< 성 별 >										
남자	100.0	48.6	100.0	10.4	6.1	21.2	62.3			51.4
여자	100.0	40.2	100.0	12.5	7.7	30.0	49.7			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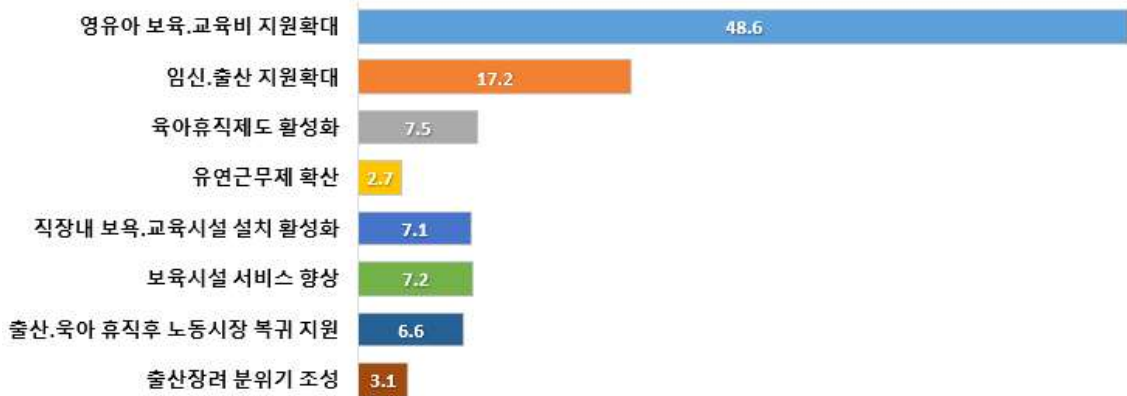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5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주된응답)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48.6%

-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무상보육 전면 실시 등)」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모든 분류에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응답은 지역별로 중부권(54.3%)에서 더 높게 응답했으며, 북부권은 (43.0%)로 나타남.
 - 학력별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표 2-5]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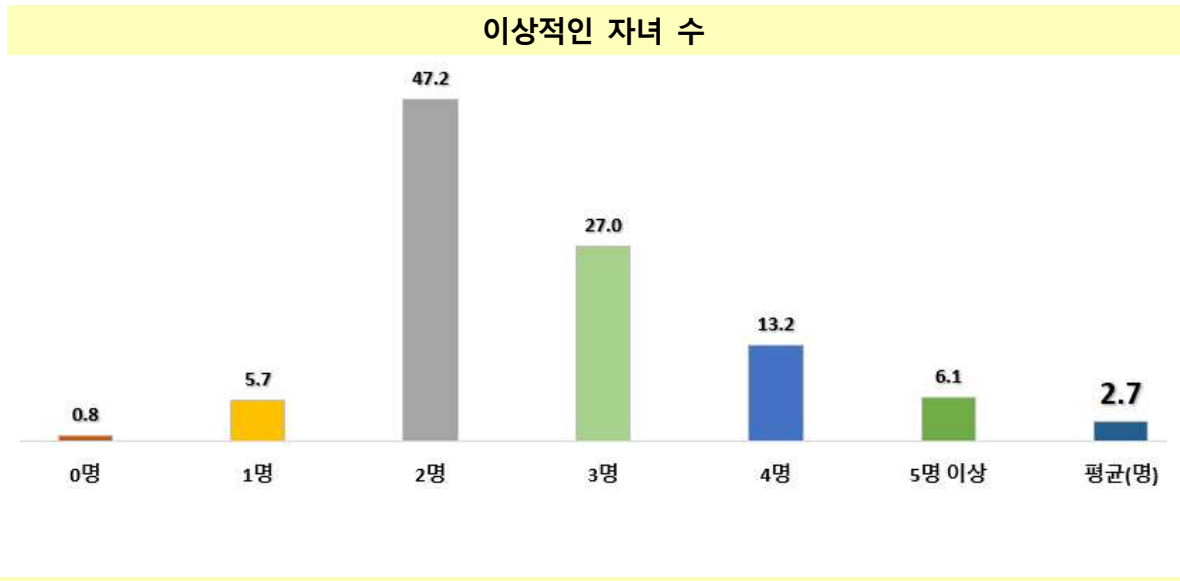
구분	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임신·출산 지원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내 보육·교육 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출산·육아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기타
2017년	100.0	53.5	14.6	8.9	4.3	4.6	4.8	5.0	4.2	0.2
2019년	100.0	48.6	17.2	7.5	2.7	7.1	7.2	6.6	3.1	0.0
< 지역별 >										
중부권	100.0	54.3	14.7	5.8	4.1	8.7	3.7	5.6	3.1	
북부권	100.0	43.0	15.8	12.7	3.7	8.5	4.6	5.9	5.7	
서남부권	100.0	46.5	20.4	5.9	0.8	4.7	12.2	8.1	1.5	
< 성별 >										
남자	100.0	48.1	16.5	7.7	3.4	9.5	5.7	6.3	2.7	
여자	100.0	49.1	17.9	7.2	2.0	4.4	8.9	7.0	3.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6 이상적인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이 47.2%로 가장 많아

- 혼인 여부 또는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는 2.7명으로 2017년(2.9명)대비 0.2명 감소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5~29세(2.0명)와 65세 이상(3.2명)간의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가 1.2명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별 소득이 증가할수록, 고학력일수록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는 지역별로 북부권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신도시권이 2.6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이상적인 자녀 수 - 총 자녀수

(단위: %)

구 분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명)
2 0 1 7 년	100.0	0.4	4.0	42.0	27.0	19.7	6.9	2.9
2 0 1 9 년	100.0	0.8	5.7	47.2	27.0	13.2	6.1	2.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9	6.9	48.5	22.6	14.8	5.3	2.6
북 부 권	100.0	0.3	4.6	40.2	25.2	20.3	9.5	2.9
서 남 부 권	100.0	0.0	5.4	50.4	32.5	7.2	4.6	2.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표 2-7] 이상적인 자녀 수 - 아들, 딸

(단위: %)

구 분	계	아들 딸	소계						무관
			0명	1명	2명	3명	4명		
아들	100.0	93.2	100.0	6.8	62.8	25.3	4.0	1.1	6.8
딸	100.0	94.2	100.0	1.5	61.6	31.1	5.1	0.6	5.8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